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3면
전북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 출범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음 8월 8일) 제335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지역 주도 글로컬 금융·경제 네트워크 구축

제4회 지니포럼 개막

도·지방시대위·전주시
국민연금 등 4개 기관 협업

오늘까지 금융·경제
균형발전 등 최신 이슈 다뤄

국제금융컨퍼런스, 지역 특화
금융도시로 나아갈 방향 제시

21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2023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에 김관영 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지역 주도의 글로컬 금융·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준비한 제4회 지니포럼(GENIE (Glocal Emerging Network In Economy) Forum)이 21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막이 올랐다.

지니포럼은 전북도와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전주시(시장 우범기),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등 4개 주관기관이 협업하여 개최하는 글로컬 경제 네트워크 행사로 올해 제4회를 맞이했다.

올해는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글로컬 금융' 이라는 주제로 이틀에 걸쳐 2개의 메인행사(개막식,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와 3개 연계행사(지방시대컨퍼런스, 베터투게더 챌린지, 스토리지데모데이)로 구성됐다.

21일 오전 라한호텔 온고을홀에서는 지니포럼 국제조직위원회와 글로벌 금융·경제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니포럼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이 개최됐다.

개막식에는 조직위원회 위원들인 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의 개회사와 김관영 도지사,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의 환영사에 이어, 김주현 금융위원장 및 김성주 국회의원의 영상축사,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특히, 개막식에서는 상생의 정신을 기반으로 금융·경제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인물에게 1만불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하는 '지니어워즈' 시상식이 개최된 가운데, BNY Mellon 로빈 빈스(Robin Vince) 회장이 제4회 지니어워즈를 수상했다.

개막식 당일 이어진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JIFIC)에서는 국내외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대전환시대, 금융의 미래와 전북의 도전'을 주제로, 인공지능(AI) 기반 투자혁신의 방향과 전북도의 금융도시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가 심도있게 펼쳐졌다.

먼저, 미국 보스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 글로벌 수탁은행 중 하나이자 2019년 전주에 사무소를 개소한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SSBT)의 최고운영책임자(President&COO, Chief Operating Officer)인 루 마이우리(Lou Maiuri)가 영상으로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어, 세계적인 사모펀드 운용사인 워버그 핀커스 최고경영자(CEO)인 찰스 R. 케이(Charles R. Kaye)가 '최근 투자 환경에 대한 관점'에 대해 기조연설자로 나서, 한국 경제와 전라북도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이날 오후 라한호텔 기와&마루홀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지방시대컨퍼런스'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개혁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함께 개최됐다.

지방시대컨퍼런스에서는 마츠다 히로야(Masuda Hiroya) 현 일본우정 대표이사가 '일본의 지방소멸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1세션에는 히라타 후지오(Hirata Fujio) 효고현립대학교 교수와 채재은 가천대 교수, 2세션에는 조나단 타워(Jonathan Tower) 미(美) Arctaris Impact Fund 대표와 허문구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소장 등 국내외 연사를 모시고 '지방을 살리는 교육개혁'과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해법을 찾는 논의가 진행됐다.

22일 온고을홀에서는 '지역을 살리는 평생교육'을 주제로 '베터투게더 챌린지'가 열려 평생교육원에서 활동해온 국내 평생교육 관련 관계자들이 평생교육 사례를 발표하고 정보를 교류한다.

지니포럼 국제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관영 도지사는 "글로벌 금융도시로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전라북도에서, 세계 금융·경제를 이끌어가는 석학들이 모이는 제4회 지니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전북도에서 세계 금융의 의제를 함께 논의하고 나아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 포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중기 육성자금 총 395억원 푼다

전북도, 경영안정자금 등 내달 4일부터 4분기 신청접수

전북도가 다가오는 10월 4일부터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4분기 신청을 받는다. 총 규모는 395억원으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50억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20억원, 경영안정자금 225억원이다.

자금별로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10월 4일부터 6일, △'경영안정자금'은 10월 16일부터 18일,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10월 25일부터 27일로 각 기간동안 9시부터 1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현장신청은 받지 않고,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https://fund.jbba.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하니, 신청 시작일 9시에 발빠르게 신청해야 한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당초 10월 2일부터 5일까지였으나,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4일부터 6일까지로 변경됐으니, 날짜에 유의해 신청해야 한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는 시설자금 최대 10억원(지역산업 13억원), 운전자금 최대 3억원이고, 대출금리는 4.0%로 도에서 2.18%를 지원하고 기업에서는 1.82%의 이자를 부담한다.

벤처기업 육성자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는 최대 6억원이고, 대출금리는 4.0%로 도에서 3.18%를 지원하고 기업에서는 0.82%의 이자를 부담한다.

경영안정자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우대기업 5억원)이고, 대출금리는 시중은행 변동금리로 도에서 2~3%를 지원하고, 기업에서는 도 이자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리를 부담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 또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및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지난 15일에 게시된 '2023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고향사랑기부하고 추석 선물 받고

전북도, 오늘부터 고향사랑기부 이벤트 기부자 300명에 추첨 통해 쌀 증정

전북도가 추석 연휴 기간 고향사랑기부제 관심 유도와 도내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도모를 위해 고향사랑기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벤트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되며, 전라북도나 도내 14개 시·군에 10만원 이상 기부 후 답례품 신청까지 완료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이벤트는 온라인은 고향사랑이음(www.ilovegohyang.go.kr) 사이트, 오프라인 전국 농협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를 하고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고향사랑기부제 기본 혜택인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3만원 답례품 제공에 더해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당첨자 총 300명(지자체별 20명 정도)에게 신동진 쌀 4kg이 제공되며, 추첨 결과는 10월 19일에 발표한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전북도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와 기부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자 추석맞이 고향사랑기부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10만원 전액 세액공제로 연말정산 시 돌려받고,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자란 전북도 고향사랑기부 답례품까지 모두 느껴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재훈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